



8경기 무실점 이란... 어떻게 뚫어낼까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을 가늠할 수 있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31일 오후 9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A조 9차전 이란을 상대한다. 현재 한국(승점 13)은 이미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은 이란에 이어 불안한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3위 우즈베키스탄(승점 12)에 단 1점차로 쫓기고 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이 이란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다음달 6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전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의 운명이 갈린다. 설상가상으로 이란, 우즈베키스탄과의 2연전에서 모두 패한다면 아시아의 조 3위 가리 플레이오프를 거쳐 북중미 4위와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벌여야 하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21일 조기 소집을 통해 경기도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 모인 대표팀은 28일 해외파들이 모두 합류하면서 완전체를 이뤘다. 상황은 낙관적이진 않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잘츠부르크), 기성용(스완지시티) 등이 크고 작은 부상을

내일 WC최종예선 9차전 반드시 골 넣어야 승리 유럽과 공격수 악재 부상 기성용·황희찬 무릎 통증 손흥민 조기복귀 고무적

안고 있다. 그나마 손흥민의 경우 소속팀에서 경기를 치르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기성용은 사실상 출전이 어렵다. 여기에 최근 소속팀에서의 물오른 득점 감각으로 신태용호의 주전 원톱 0순위로 손꼽혔던 황희찬 역시 팀 훈련 도중 오른쪽 무릎 부상을 입었다. 이 여파로 슈투름 그라츠와의 주말 경기에서는 아예 출전 명단에서 배제됐고 곧바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황희찬은 "큰 부상은 아니다. 중요한 경기라는 것을 알기에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면서 "감독님께서 어떤 축구를 원하시는지 잘 안다. 좋은 경기력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신중하다. 유럽과 공격수들의 예기치 못한 부

상 여파로 비상이 걸렸다. 따라서 공격 전술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이란은 여유롭다. 이란은 6승2무(승점 20)의 성적으로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했다. 이번 예선전을 무패와 무실점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입국한 이란은 다음날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 최종예선 9, 10차전에 나설 24명의 선수들을 발표했다. 명단은 골키퍼 3명, 수비수 8명, 미드필더 6명, 공격수 7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23일 이미 공개됐던 11명의 자국리그 소속 선수들에 13명의 해외파 선수들이 새롭게 가세했다. 공격진에는 레자 구차네자드(SC 헤렌벤)와 카림 안사리파드(올림피아코스) 등 해외파들이 예상대로 합류했다. 지난 10일 한국전에서 결승골을 뽑았던 사르다르 아즈문(부인 카잔)도 이름을 올렸다. 아즈문은 경교 누적으로 한국전에 나설 수 없다. 자연스레 한국전에는 아즈문을 제외한 23명이 출전한다. 그리스 클럽 파니오니오스 소속으로 이스라엘 클럽을 상대해 제명 논란을 불러왔던 예산 하지사리는 엔트리에

뽑혔다. 반면 같은 처지의 미드필더 마수드 소자예이(파니오니오스)는 제외됐다. 아즈문의 결장으로 공격에는 레자 구차네자드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차네자드는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21골을 터뜨리며 득점 2위에 올랐다. 한국의 경계대상 1순위다. 여기에 안사리파드, 알리레자 자한바크시(AZ 알카마트) 등이 견제해다. 무엇보다 선제골을 내주면 힘들어진 다. 그 동안 중동 팀들은 선제골을 넣고 '침대축구'로 농락해왔다. 공격과 함께 이란은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8번의 최종예선을 치르는 동안 단 1골도 내주지 않으며 철벽을 과시하고 있다.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골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격수들이 이란 수비수들을 어떻게 뚫어낼지가 관건이다. 공격수들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유다. 손흥민은 "8경기에서 골을 안 내준 것은 대단하다. 상대이지만 조직력이 좋아 골을 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경기장 안에서 서로 도와주는 플레이가 나와야한다. 그런 플레이가 있어야 상대를 흔들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태권도 최강자 무주로 모여라”

9월 16일~11월 19일 경연대회 열려... 참가 접수 줄이어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오는 9월 16일부터 개최하는 '제3회 태권도원 경연대회'의 참가 문의가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15년을 시작으로 1·2회 대회를 치르며 태권도인 들의 큰 호응을 받아 온 '태권도원 경연대회'는 1박2일 경연의 도입과 대회 참가자의 편의를 고려한 '패키지형'을 선보이는 등 기존의 각종 대회 참가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태권도인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태권도인들의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제3회 태권도원 경연대회'는 품새와 시범, 자유품새, 마스터즈, 태권체조, 성인부 이벤트 부문의 경연이 펼쳐지며 총 상금 7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중에서도 가족·도장·단체 참가자들을 위한 '패키지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회 참가비 면제와 숙식·연습장소·체력관 이용권·공연장 리허설·모노레일 이용권 제공 등 태권도원 콘텐츠 경험의 특전을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형'은 선착순 50팀(4인실)에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20여 팀이 접수를 완료했다. 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은 "대회 개최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며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회 준비에서부터 숙박 등 세심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회요강과 참가 신청, 패키지형 접수 등 대회관련 문의사항은 '2017태권도원경연대회' 홈페이지(contest.tkdwon.kr)와 전화(320-0077)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기자

빅뱅 탐, 의경 전역 조치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

대마를 흡연해 재판에 넘겨져 의무경찰 직위가 해제된 빅뱅의 탐(30·본명 최승현)이 28일 전역 조치됐다. 탐은 남은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 받아 오늘 전역 조치했다"며 "앞으로 최씨는 본인의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 아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씨에 대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진행해 의경으로 복



무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육군본부에 최씨의 병역 처분 변경에 대한 심사를 의뢰, 군이 '현역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최씨는 전역하게 됐다. 최씨가 대마 흡연으로 의경 직위를 해제당한 지난 6월9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할 때까지 기간은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뉴시스

영화 '브이아이피' 100만 관객 돌파

2위는 택시운전사 기록

영화 '브이아이피' (VIP)(감독 박훈정)가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29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브이아이피'는 전날 890개관에서 3966회 상영, 7만7648명(박스오피스 191)이 봐 개봉 9새 만에 누적 관객수 100만명을 돌파했다(101만8001명). 이날 매출액은 5억8500만원(누적 매출액 82억원), 매출액 점유율은 25.5%였다. 다만 '브이아이피' 흥행세는 '킬러의 보디가드' 발레리안:천 개 행성의 도시' 등 신작들이 개봉하는 30일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29일 오전 8시 현재 예매 관객수

가 1만3397명(4위)에 머무르고 있다. 영화는 국경원과 미국 CIA가 '기획 귀순' 시킨 북한 핵심 권력자의 외아들이 한국에서 연쇄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고, 이 사건을 두고 용의자를 빼돌리려는 국경원과 CIA는 물론, 범인을 체포하려는 경찰, 북한 공작원 출신 탈북자까지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신세계' (2013)를 만든 박훈정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장동건·김명민·이종석·박희순 등이 출연했다. 한편 이밖에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택시운전사' (6만5228명, 누적 1143만명), 3위 '청년경찰' (6만1727명, 489만명), 4위 '장산범' (2만7739명, 114만명), 5위 '혹성탈출:종의 전쟁' (2만 1373명, 196만명) 순이었다. /뉴시스

정현, 세바요스 꺾고 2회전 진출

3시간 30분 걸친 승부... 세계랭킹 15위 이스너와 격돌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21·한국체대·세계랭킹 47위·사진)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2회전에 올랐다. 정현은 2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라싱 메도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세계랭킹 58위 오라시오 세바요스(32·아

르헨타나)를 3-1(3-6 7-6(10-8) 6-4 6-3)로 꺾었다. 첫 세트를 세바요스에 내준 정현은 타이브레이크 점진 끝에 2세트를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정현은 3, 4세트를 내리 가져오며 승리를 3시간 30분에 걸친 승부틀 승리로 장식했다. 정현이 메이저대회 1회전을 통과



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정현은 2015년 US오픈에서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2회전 무대를 밟았다. 올해 호주오픈에서 2회전에 오른 정현은 프랑스오픈에서는 3회전까지 진출했다. 그는 부상 탓에 지난달 벌어진 월드컵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해 US오픈에도 부상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 정현은 2회전에서 세계랭킹 15위

존 이스너(32·미국)와 맞붙는다. 이번 대회에서 10번 시드를 받은 이스너는 1회전에서 피에르 위그 에르베르(26·프랑스·세계랭킹 65위)를 3-1(6-1 6-3 4-6 6-3)로 꺾었다. 이스너는 2012년 4월 세계랭킹 9위까지 올랐던 선수로, 208cm의 장신에서 뿔어나오는 강서브가 주목적이다. 이스너는 1회전에서도 무려 22개의 서브 에이스를 터뜨렸다. 정현은 이스너와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 투어 US 클레이코트 챔피언십 8강에서 한 차례 맞붙었는데 0-2(6-5-7 4-6)로 졌다. /뉴시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